

#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

고광명\*\*  
kkm0630@jejunu.ac.kr

## 〈要旨〉

本研究では在日済州人の社会をより一層明確に捉える必要があるため、日本の社会で居住する在日済州人の济州道への寄贈と投資活動を考察している。本研究の結果を要約すると、次のようである。

第一に、渡日労働者の送金は济州道の現金保有を拡大しながら济州地域の経済発展に大きな活力をもたらした。第二に、出家海女の送金は济州道の農家所得が増加し、济州道の経済が発展する結果となってきた。第三に、在日済州人の寄贈は初期の同情的・経済的の優越性から離れ、経済的成就に対する誇示と名誉、そして体裁などが大きく作用してきた。特に在日済州人の地域社会貢献は恩恵を受けた個人に生活向上のような経済的な助けとして作用したり、济州道の地域開発、経済発展にも大きな役割をしてきた。第四に、在日済州人の柑橘苗木の寄贈は济州道の経済発展の方向と在日済州人との関係定立にも大きな役割をしてきた。第五に、在日済州人の企業家は韓人経済の影響力を拡大しながら製造業およびサービス業に進出して莫大な資本を形成し、地域社会発展に大きな貢献をしてきた。第六に、在日済州人の企業家は1960年代始めに韓国の経済復興のため、莫大な財政的支援と技術、ノウハウを伝授してくれた。第七に、在日済州人の投資は寄贈と混載して表したり、济州道への資産を委託する形態が多く、さらに小規模ないし家族単位または济州道への寄贈する形式で現れた。

従って、在日済州人は韓人社会の中で占める比重が非常に高く、济州社会の寄贈と故郷の愛郷心に対する認識を定立しながら济州地域の経済発展に大きく貢献してきた。彼らの寄贈と投資活動は、財貨だけではなく精神的支援など様々なところに幅広く行ってきた。特に、在日済州人の企業家たちは移住初期に単純な靴工場、ゴム工場など零細製造業から出発したが、今はパチンコ、焼き肉、建設業、不動産業などで日本人の会社と競争ができる程度の成長を追求している。

主語: 在日済州人(Jejuian residents in Japan), 企業家(entrepreneur), 送金(remittance), 寄贈(donation), 投資(investment)

## I. 머리말

入管協會(2007)가 발표한 『在留外國人統計』에 따르면 재일(在日)제주인은 재일한인 598,219명(28.7%) 중 97,651명으로 약 16.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간토(關東)지역에 26,983명(27.6%), 간사이(關西)지역에 64,000명(65.5%)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2개 지역의 재일제주인 수가 전체 97,651명 가운데 90,983명으로 93.1%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75-B00012)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1) 入管協會(2007), 『在留外國人統計』.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징용·징병 등 강제적으로 이주(involuntary emigration)되거나 해방 이후 4·3사건과 전쟁을 피해, 그리고 출가해녀(出稼海女) 등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2)</sup> 하지만 1945년 이후 많은 제주도 출신들이 제주도로 귀향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잔류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고향으로 귀향하였으나 제주도의 여의치 않는 사정으로 다시 일본으로 재이주하게 되면서 재일제주인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sup>3)</sup> 이들 대부분은 도쿄(東京) 미카와시마(三河島)나 오사카(大阪) 이쿠노구(生野區) 등의 대도시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간토와 간사이지역을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의 커뮤니티(communitiy)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일본 이주는 1923년 제주도와 오사카(大阪)를 잇는 정기항로(定期航路)가 취항하면서 일본과의 왕래가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방적(紡績)공업이 발달했던 오사카에 많은 제주도 출신자들이 거주하게 됐다. 당시 일본으로 이주한 제주도 출신자들은 대부분 조선, 탄광, 토목 등에 단순노동으로 투입되었고, 여자들은 주로 방적공장에서 일하면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중노동에 시달려만 했다. 결국 이들은 이주 초기부터 자본이나 기술을 가지고 이주했다기보다는 단순 노동력을 가지고 일본의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국생활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보다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더 걱정했다. 제주도에 밀려온 애향의 물결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전기시설, 학교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마을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1965년부터 1979년까지 15년간 고향에 보낸 감귤묘목(3,470,254 본수) 기증은 제주도 감귤산업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이들은 제주도 지역개발을 위하여 심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육·문화 사업을 비롯하여 산업·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할 뜻을 가지고 시설의 유지와 자본의 투자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도 2대 산업인 관광개발과 감귤산업은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투자활동으로 시작됐고, 본도 출신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로 작용했다. 현재 제주도는 재일제주인 1세대의 많은 기증과 투자활동으로 눈부실만한 발전을 달성하였다. 여기에는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커다란 비중

2) 해방 이전 제주인의 도일은 당시 제주도와 일본과의 생활수준에서 차이나 나고 일본 이주로 인한 기대 소득이 컸기 때문에 생겨났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해방 이후 제주인의 도일은 1947년 3·1 시위 사건에서 도화선이 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제주출신 청년들에 대한 강력한 경찰의 탄압이 이루어졌고, 이에 연루된 제주인들 중에는 경찰의 강력한 검거를 피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제주4·3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대략 5천~1만 명이 일본으로 밀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그 이유는 제주도 농촌에 흉년이 들어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1946년 제주도에 만연했던 전염병 및 불안한 치안문제들로 인해 고향으로의 발길을 재촉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의 오사카에서 70~75% 정도의 재일한인들이 귀향했지만 제주도 출신들이 밀집해서 거주했던 이쿠노구는 60% 정도의 사람들이 귀향했다고 한다.

을 차지하며, 제주도 산업발달과 도민소득 향상에 한 축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공식·비공식 자료와 통계,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재일제주인의 고향에 애향심을 표현한 기증과 투자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은 이유는 재일제주인의 기증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재일제주인 1세를 비롯한 2·3·4세에게도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지역사회공헌에 대한 기증이나 투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재일제주인과 제주도와의 관계가 형제를 기반으로 한 상호 동반적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제주도 출신들을 지역사회에 일방적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는 대상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일제주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재일제주인의 기증실적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재일제주인의 투자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재일제주인의 의미

재일제주인의 의미는 ‘재일동포(在日同胞)’의 개념을 원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일시체류, 영주권자, 유학, 2·3·4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출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제주출신 재일동포, 제주출신 재일교포, 재일 제주출신자, 제주출신 재외교민(교민사회) 등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재일(在日)’을 규정하는 것이 국가시스템에 따른 한국이나 조선(북한)이라는 국적 표시인지, 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인지, 또는 역사나 문화에 얽힌 의식인지, 나아가서 재일한인의 권리획득을 위해 싸우는 존재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sup>4)</sup>

현재 재일제주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한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다른 지역출신자에 비해 강한 지역성을 표출하는 이중구조(二重構造)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1925년 이쿠노구(生野區)에는 다른 지역출신의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주도 출신자들은 이들로부터 ‘섬놈’이라는 이유로 멸시당하는 이중적 차별을 일본사회에서

4) 尹健次(2002),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85~315.

감수해야만 했다. 이들은 ‘아리랑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제주출신들에게 수많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주출신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저력으로 지금의 재일제주인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sup>5)</sup>

둘째, 재일제주인은 일본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제주문화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이면성(裏面性)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제주문화를 의식하고 간직하기보다는 일본문화에 흡수되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원인은 해방 이후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재일한인 사회의 세대교체도 착실히 진행되는 가운데 의식과 가치관, 생활형태가 다양화되고, 민족교육을 받는 동포 자녀가 격감하는 중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일한인을 포함한 재일제주인은 바야흐로 국적이나 혈연, 의식 상태나 세대교체 등의 측면에서 복잡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로 형성되어 도(道) 단위보다는 마을(洞·里) 단위의 공동체적(共同體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의 마을 단위별로 구성된 친목조직이 활성화된 것도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생활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본래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상호부조와 친목도모의 기제(基劑)로써 활용되어 재일제주인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발휘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sup>6)</sup>

넷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동일한 입장의 재일한인 중에서 결혼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가치체계의 양면성(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출신자가 일본사회 속에서 생활하여 온 타 지역 출신자와의 교류가 있으면서 일본인보다는 가치체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수용하려고 했다. 또한 제주도 출신자 속에서도 2·3세는 소위 재일한인으로서 타 지역 출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본국의 유교적 사고를 흡수하여 개념화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제주도의 생활양식이 전달되어 가부장제적(家父長制的) 사고가 강하지 않아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sup>7)</sup>

따라서 재일제주인 1세는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 피와 땀으로 재일제주인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대를 살았다. 2·3세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재일제주인 사회를 보다 공고하게 형성하면서 일본사회에서 그들의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5) 신형철(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研究』 제14집, 濟州學會, p.70.

6) 제주발전연구원(2000), 『100만 제주인의 사회적 통합증진과 역량 극대화 방안 연구』, pp.15~16.

7)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關東地方を中心に』, 新幹社, p.138.

## 2.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예의 기증 실적을 파악하고 투자활동을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재일제주인 사회의 형성, 그리고 제주사회 발전의 기제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재일한인 연구는 이주의 역사적 배경, 법적지위, 아이덴티티 문제, 개인 생활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재일한인의 기증과 투자활동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에서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河明生(2003)은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활동을 유교적 가치관인 ‘금의환향(錦衣還鄉)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주장했다.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금의환향 지향은 한민족적 소양이 높은 재일한인 1세 기업가들의 지향성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재일한인 1세대들은 일본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달성한 후 본국투자나 고향예의 물질적인 공헌에 의해 금의환향을 실현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재일코리안 1세대들은 본국의 풍토, 풍습, 언어 등에 익숙하고 금의환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 하에서 많은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이 투자하게 된 동기를 그는 당시 투자가에 대한 한국정부의 훈장제도와 애국심의 고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한국 투자요인들은 오히려 기업가들의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친척이나 훈장제도라는 비합리적인 인간의 심성에 의존했기 때문에 많은 실패나 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8)</sup> 梁京姬(2009)는 재일한국인 기업가들이 본국에 투자한 신한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및 금융업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일본 사회의 소수민족으로서 일치 단결하여 끊임없는 도전정신에 의해 성공을 이끈 사람들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국의 금융 서비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재일한인 기업가의 도전정신, 그리고 신한은행의 조직문화 및 경영방식 등은 향후 한국사회에 계승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sup>9)</sup>

오가와·테라오카(小川伸彦·寺岡伸悟, 1995)는 재일한인 중에서 재일제주인은 ‘고향 마을’이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제로 재일제주인 사회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고향 제주예의 기증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재일제주인의 인적 네트워크가 재일제주인 사회의 형성뿐만 아니라 고향 제주예의 기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sup>10)</sup> 高鮮徽(1998)

8) 河明生(2003), 『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精神：在日韓人事例研究』, ITA.

9) 梁京姬(2009), 「在日韓国人企業家が韓国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国朝鮮研究』 第9号, 現代韓国朝鮮学会, pp.16~30.

는 제일제주인 사회에서 지연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존재가 마을 친목회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해방 전후를 통해 일본에서 출신 지역별로 마을 친목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각 친목회는 규약을 정하고 연중행사나 출신지역에 대한 지원, 일본에서의 상호부조를 강화시켰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제주도 출신들은 한국 출신 마을의 지역발전을 위한 기부와 상호교류를 충실히 시행해 왔다. 특히 제주도 출신 기업가들은 지역 교육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sup>11)</sup>

李仁子(2004)는 이주자와 고향 간에 결합되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제주도 고내리(高内里) 출신자를 중심으로 제일제주인 이주자의 고향에의 기부와 고향 관계의 변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주자 중에는 고향과의 관계를 일절 단절해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동향출신자 집단이나 조직을 만들어 고향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향수를 서로 느끼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고 기술하였다. 결국 이주자의 기부는 단순히 금전의 수주(受注)를 넘어 위신과 존엄의 수주이며, 은의와 감사의 교환이며, 게다가 고향 마을과의 정서적 연대의 갈망을 나타내려고 했다.<sup>12)</sup> 고광명·진관훈(2006)은 인적 네트워크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제일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제주도에의 기증 현상을 분석했다. 이는 제주사회와 제일제주인 사회가 불신과 갈등을 넘어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sup>13)</sup> 이경원·진관훈(2006)은 제일제주인의 투자유치 변천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그들의 투자 애로요인을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일제주인의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주도와 제일제주인 기업가들 간에 빈번한 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이 제주도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sup>14)</sup>

이상의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제일제주인의 기증과 투자활동 관련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출신과 대비되는 제일제주인의 제주도에의 송금과 기증, 그리고 투자 등 지역사회공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

10) 小川伸彦·寺岡伸悟(1995), 「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寄贈-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地縁結合」, 『社会学論集』第2号, 奈良女子大学, pp.77~97.

11) 高鮮徽(1998), 『20世紀の滞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12) 李仁子(2004), 「移住者の故郷への寄付と故郷づきあいの変遷」, 『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 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學術研究報告書, pp.7~17.

13) 高광명·진관훈(2006), “제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社會科學研究』 第14(1)輯, 西江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pp.148~181.

14) 이경원·진관훈(2006), “제주도 지방정부의 제일제주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韓國比較政府學報』 第9卷 第3號, 韓國比較政府學會, pp.171~188.

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 Ⅲ.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의 송금과 기증

#### 1. 재일제주인의 현금 송금

##### 1) 도일 노동자의 송금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제주도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으로 이주하는 재일제주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sup>15)</sup> 도일(渡日) 증가의 직접적인 동기는 일제 식민지정책에 의해 농어촌이 피폐화되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일본의 공업화로 인해 대량 노동력의 필요성, 일본과의 정기항로 개설 등으로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도일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 도항자수는 1920년대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30년대 초에 이르러 정체된다. 일본경제가 회복되는 193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1933년에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만 1935년에 들어 전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특히 1923년 오사카(大阪) 직항항로의 개설로 인해 1924년부터 도항자수가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다가 1933년에 들어 절정에 달하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면서 1935년부터 1/3 가량 줄어든다.

<표 1>에서 보면 총 송금액과 1인당 송금액은 모두 1928년과 1929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1930년부터 다시 줄어들지만 1938년에는 가장 높게 나타난다.<sup>16)</sup> 이것은 일본의 경제

15) 大阪職業補導會(1924)가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大阪府在住朝鮮人出身別比率表」에 따르면 제주 609명, 전남 192명, 경남 85명, 경북 55명 등으로 나타나 제주도 출신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大阪地方行政府報告書(1923)에 의하면 1,000명의 재일한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0% 가량의 이주민이 전라남도 출신이었고 이 중 60% 정도가 제주도 출신이었다. 특히 한반도와 일본의 규슈(九州)섬 사이에 위치하여 1923년 오사카 지역과의 직항항로가 생긴 제주도는 한인 이주민들의 발판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또한 日本內務省警報局(1923)에 따르면 1920년대 출신자가 알려진 도항자 72,815명 가운데 경상남도 출신이 39%, 전라남도(제주도 포함) 출신이 25%, 경상북도 출신이 16%로서 이들 출신자만 전체의 80%를 차지하였다. 日本內務省警報局(1927) 조사에서는 이주자의 73%가 친척 또는 친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것은 지연과 함께 친분관계도 도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김 게르만(2005),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16) 1927년에 일본으로 도항한 일본 거주 제주도민들이 매년 백만 원을 고향에 송금했다고 한다(《매일신보》 1927년 1월 18일자). 같은 해 일본에 건너가 일본 각지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제주인은 3만 명 이상으로 그 중 3천 명 정도는 매년 백만 원 이상을 고향에 보내는 송금현상이 이어졌다고 한다(《동아일보》 1927년 1월 19일자).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본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1933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특히 도항자수가 증가하는 1929년까지의 총 송금액은 증가하였고, 이후 일본 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총 송금액과 1인당 송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1933년의 경우 도항자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액은 줄어들었지만 1인당 송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더욱이 1인당 송금액은 1938년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도일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따라서 제주도민의 도일은 제주도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할 만큼 대규모로 이루어 졌고, 보내온 송금액이 당시 제주도 통화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이들이 귀향할 때 직접 가지고 온 액수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는 도일 노동자에 의한 현금 송금이 제주도에 그대로 유입되면서 제주도 경제발전에 큰 활력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sup>18)</sup>

<표 1> 재일제주인의 일본 이주와 송금 현황

(단위 : 수, 円)

연도	도항자	귀환자	총 송금액	1인당 송금액
1926	15,862	13,500	774,784	27.06
1927	19,224	16,863	956,571	31.36
1928	16,762	14,703	1,289,714	35.54
1929	20,418	17,660	1,243,714	35.20
1930	17,890	21,416	799,180	25.14
1931	18,922	17,685	715,012	21.65
1932	21,409	18,307	685,155	18.96
1933	29,208	18,062	857,919	29.39
1934	16,904	14,130	1,053,940	21.05
1935	9,486	11,161	1,006,985	20.88
1936	9,190	11,095	1,087,518	23.40
1937	7,484	8,004	1,073,870	23.37
1938	8,979	8,972	1,470,730	52.01

자료 : 濟州島廳(1937, 1939), 『濟州道勢要覽』.

17)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각, pp.150~151.

18) 濟州島廳(1937), 『濟州道勢要覽』, pp.24-25.



## 2) 출가해녀의 송금

출가해녀의 일본 진출은 1903년경부터 규슈(九州)와 태평양(太平洋) 연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미야케지마(三宅島)에서 시작되어 그 후 오사카를 기점으로 해서 태평양 연안의 각지로 확대되어 갔다. 1923년 2월 제주도-오사카 간의 직항항로인 기미가요마루(君代丸)가 취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매년 1,500명 정도의 제주도 해녀가 고용계약을 맺고 해녀노동에 임했다. <표 2>에서 보면 1932년 제주도 어업 등록 수는 9,000명에 달했는데, 출가해녀로 나간 지역은 경상남도 35%, 쓰시마 15%, 그 밖에 태평양 연안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50년간 해녀들이 이동한 분포를 보아도 넓은 지역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표 2> 1930년대 제주도 해녀의 출가(出稼) 현황

(단위 : 수, %)

지명	수	%	지명	수	%
함경북도	8	0.12	神奈川県	228	4.82
함경남도	44	0.93	静岡県	233	4.93
황해도	48	1.02	三重県	60	1.30
강원도	212	4.49	徳島県	105	2.22
충청남도	76	1.61	高知県	180	3.81
전라북도	38	0.80	愛媛県	5	0.10
전라남도	592	12.53	鹿児島県	83	1.80
경상북도	337	7.14	長崎県	63	1.33
경상남도	1,640	34.72	対島	705	14.93
千葉縣	66	1.40	합계	4,723	100

자료 : 濟州島廳(1937), 『濟州道勢要覽』 ; 梶田一二(1976), 『梶田一二地理學論文集』, 弘詢社

1929년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 해녀(7,300명)는 도내 연안에서의 생산 활동으로 약 25만 엔을 벌어들인 반면, 일본으로 이주한 출가해녀(3,500명)는 40만 엔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이러한 제주도 해녀의 출가와 도내 잠수 활동으로 제주도 농가에서 해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고, 해안지역의 경우 해녀의 경제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이루

19) 長嶋俊介(2008), 「世界遺産登録に向けての文化の掘り起こしと交流」, 『제주해녀와 일본아마(海女)의 무형유산』, 제3회 한·일 해녀(海女) 국제학술심포지엄, pp.53~54.

고 있었다. <표 3>에서 송금 액수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출가해녀들이 송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대부분 어기(漁期)가 끝나 돌아올 때 현금을 소지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따라서 출가해녀들의 송금은 도일 제주도민들의 송금과 함께 제주도 농촌의 현금보유를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 농촌의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나아가 제주도 경제가 윤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3> 제주도 출가해녀의 송금 현황

(단위 : 円, 명)

연도	출가해녀 수	총 송금액	1인당 송금액	비고
1929	4,310			
1930	3,860	908,000	235	
1931	3,950	687,350	174	
1932	5,078	1,100,000	217	일본 1,600명, 국내 3,478명
1936	3,360	770,000	229	
1937	4,402			일본 1,601명, 국내 2,801명
1939	4,132			일본 1,548명, 국내 2,584명

자료 : 濟州道廳(1939), 『濟州道勢要覽』.

## 2. 재일제주인의 기증 현황과 실적

### 1) 재일제주인의 기증 현황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은 제주도·제주도민들과의 물질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지연(地緣), 학연(學緣), 혈연(血緣)적 결속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교류를 의미한다. 이것은 재일제주인의 애향심, 고향인 제주도와와의 연대,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동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여 왔다.<sup>21)</sup>

<표 4>에서 재일제주인의 기증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육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사업, 즉 새마을 사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증이 가장 활발했다. 예를 들면 1960

20) 진관훈(2004), “일제하 濟州島 경제와 海女勞動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학 중앙연구원, pp.149-178.

21) 고팡명·진관훈(2006), 앞의 논문, pp.148~181.

년대 초 개발단계에서는 도로, 전기·전화, 상·하수도 개설 등과 같은 생활기반 조성사업, 새마을 사업, 감귤농장 초기 조성, 마을개발, 교육·문화 등이 제주도 발전에 커다란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1980년 이후에서 1990년대 사이에 교육사업 분야가 두드러지는 것은 기증 초기의 생활시설 사업 및 생활향상 수준에서 벗어나 제주도 경제가 발전됨으로써 교육 분야와 같은 미래지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기증 동기도 초기의 동정적 애함심, 경제적 우월성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취에 대한 과시와 사회적 명예, 그리고 체면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일제주인의 기증이 제주도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다. 오히려 재일제주인의 기증현상에 대해 무감각해져 가며, 나아가 의존심의 강화와 기대욕구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이 형제애·상호 동반적 관계라기 보다는 일방적이고 물질적 제공의 존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게다가 수혜자인 제주사회의 기증에 대한 사후처리나 심적 보상에 대한 무성의한 대처로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았다.<sup>22)</sup>

<표 4> 재일제주인의 기증실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교육사업	공공사업	문화사업	기타	합계
1960년대	277,613	71,992	80,217	8,010	437,832(1,966건)
1970년대	338,775	616,405	220,836	107,252	1,283,268(2,837건)
1980년대	7,136,222	3,894,924	317,789	233,853	11,582,788(1,825건)
1990년대	6,281,027	2,825,706	123,320	328,172	9,558,225(1,543건)
2000년대	4,572,904	523,029	2,000	168,053	5,265,986(469건)
합계	18,606,541	7,932,056	744,162	845,340	28,128,099(8,640건)

주 : 2000년대는 2007년 6월 30일까지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07), 『愛鄉의 보람』.

## 2) 재일제주인의 개인·단체별 기증

재일제주인의 지역사회공헌은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주도간의 사회적 결

22) 김희철·진관훈(2007), “재일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 기증에 관한 연구”, 『法과 政策』 제13집, 濟州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pp.101~124.

합의 강도를 파악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치고 재일제주인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들의 지역사회공헌은 수혜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제주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표 5>에서 재일제주인의 개인·단체를 통한 지역사회공헌의 연대별 흐름을 살펴보면, 기준실적은 총 9,219건으로 이중 제주도 697건, 제주시 1,159건, 서귀포시 1,241건, 북제주군 3,667건, 남제주군 2,455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북제주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사회공헌의 건수, 금액 면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것은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인 친목회, 향우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일제주인의 개인·단체를 통한 일본 내에서의 기증활동은 제주도에서의 지역사회공헌 현상과 더불어 재일제주인의 지연 네트워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의 지역사회공헌은 마을 단위의 노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23)</sup> 최근에는 제주도의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도민들이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면서 재일제주인의 본도에 대한 기증 패턴도 변모하고 있다. 향후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물품보다는 본도의 길흉사에 내는 성금이나 의연금을 기탁하는 쪽으로 패턴이 변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sup>24)</sup>

<표 5> 재일제주인의 개인·단체를 통한 기증실적

(단위 : 건수, 천원)

구분	년도	개인		단체		전체	
		건수	실적	건수	실적	건수	실적
제주도	1950년대	0	0	1	500	1	500
	1960년대	18	7,419	22	20,835	40	28,254
	1970년대	211	120,031	73	79,083	284	199,114
	1980년대	265	2,483,289	71	179,182	336	2,662,471
	1990년대	85	2,342,601	24	5,703,373	109	8,045,974
	2000년대	41	3,512,004	14	738,146	55	4,250,150

23) 고팡명(2008),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學研究』 第22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187~210.

24) 재일동포포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p.145.

제주시	1950년대	2	20	0	0	2	20
	1960년대	564	35,926	15	2,803	579	38,709
	1970년대	335	82,684	26	27,413	361	110,097
	1980년대	178	4,713,726	21	41,882	199	4,755,608
	1990년대	84	790,533	3	8,000	87	798,533
	2000년대	21	160,390	2	20,000	23	180,390
서귀포시	1960년대	142	1,078	5	1,020	147	2,098
	1960년대	520	42,282	15	6,527	535	48,809
	1970년대	346	72,647	14	33,070	360	105,717
	1980년대	118	481,348	10	20,740	128	502,088
	1990년대	35	397,520	8	21,730	43	419,250
	2000년대	83	386,726	3	12,616	86	399,342
북제주군	1960년대	34	2,742	9	6,170	43	8,912
	1960년대	927	139,359	78	57,066	1,005	196,425
	1970년대	1,437	389,301	44	39,213	1,481	428,514
	1980년대	1,010	2,175,464	39	45,534	1,049	2,220,998
	1990년대	503	1,238,070	14	17,158	517	1,255,228
	2000년대	67	304,739	2	4,015	69	308,754
남제주군	1960년대	17	4,993	1	4,000	18	8,993
	1960년대	705	83,942	26	16,535	731	100,477
	1970년대	1,177	400,706	41	27,381	1,218	428,087
	1980년대	455	884,069	9	9,294	464	893,363
	1990년대	120	1,220,591	5	14,651	125	1,235,242
	2000년대	7	76,000	0	0	7	76,000

주 : 2000년대는 2007년 6월 30일까지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07), 『愛鄉의 보람』에서 필자 조사 작성.

### 3) 재일제주인의 감귤묘목 기증

제주도 감귤재배는 196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 출신의 재일한인들이 일본에서 고향 땅으로 감귤묘목을 조금씩 기증하면서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게다가 1960년 말에 정부가 감귤생산 발전을 위한 시책을 내놓은 이후 온주감귤 재배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확장됐고, 이를 계기로 제주도는 1965년부터 감귤재식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재일

제주인 사회에서는 재일제주인 관련 단체와 마을 단위 친목회를 통하여 고향에 감귤묘목을 기증하였다. 당시 제주개발협회는 양질의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1967년도에는 2만 9,000본의 묘목을 기증 알선했다.

<표 6>에서 보면 1965년부터 1969년까지 기증묘목 및 수입묘목 또는 재산반입으로 들어 온 총 본수는 1,733,711본으로 이때부터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기증하는 묘목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도에는 1,519,300본이 들여와 식재되면서 수입묘목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1년에 1백만 본 이상의 묘목이 기증, 수입, 재산반입 등으로 들여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증묘목에 대한 수입지침을 강화하고 수입을 제한하게 되었다. 당시 감귤묘목의 기증은 단순히 묘목의 수요와 공급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제주도의 경제발전 방향과 재일제주인과의 관계정립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1970년도 봄에 기증 및 수입묘목으로 공급할 묘목 본수를 60만 본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1,604,300본이 들여와 1백만 본 이상이 초과되는 묘목이 공급되기도 했다. 이후 감귤묘목은 일본에서 기증하여 수입되는 양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9년도를 끝으로 매듭을 짓게 되었다.

이 같은 감귤묘목 기증 외에도 재일제주인은 기술 연수생을 선발해 일본에서 감귤재배 기술을 보급하는가 하면, 일본의 감귤재배 전문가를 제주도에 파견해 현지 지도에 나서는 등 감귤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다.

<표 6> 제주도 감귤묘목 수입 현황

(단위 : 본수)

구분 연도	기증묘목	수입묘목	재산반입	합계
1965	1,000	25,349		26,349
1966	54,700	61,052		115,752
1967	52,100	250,205	1,675	303,980
1968	161,500	114,545	13,215	289,260
1969	998,370			998,370
1970	1,519,300	77,000	8,000	1,604,300
1971	1,000		1,000	2,000
1972				
1973	30,270			30,270

1974	215,450	33,283		248,733
1975	270,384			270,384
1976	66,402			66,402
1977	2,684			2,684
1978	4,630			4,630
1979	85,934	200,000		285,934
1980				
1981		600		600
1982		4,866		4,866
1983		5,712		5,712
1984		1,500		1,500
1985		1,500		1,500
합계	3,470,254	774,112	23,890	4,268,256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2007),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 4) 재일제주인의 성금전달

1970년대 재일한인의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새마을 운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일거류민단 중앙본부에서는 종합 계획을 작성하고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민단은 전 조직을 동원하여 새마을 지원 성금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거두어진 성금 4억 2천여만 원을 전국 자매결연 새마을 부락에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재일한인의 모국에 대한 각종 성금은 9천 1백만 원과 29억 8천 3백만 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표 7>에서 보면 당시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재일거류민단의 지부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본국의 농촌마을은 경기 20개, 강원 17개, 충청 29개, 경상 47개, 전라 26개, 제주 9개 등 모두 148개 마을(지원 성금은 총 5억 244만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경북이 자매결연과 성금 지원액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새마을 자매결연 및 성금전달 현황

(단위 : 건, 천원)

지역별	자매결연	성금 지원액	지역별	자매결연	성금 지원액
경기	20	60,660	전남	13	52,090

강원	17	59,390	경북	21	85,080
충북	11	44,680	경남	26	72,340
충남	18	66,160	제주	9	24,630
전북	13	37,410	합계	148	502,440

자료 :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남제주군(4개)과 북제주군(5개)을 중심으로 9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총 2천 463만 원 성금을 전달받아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들 마을은 고향출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민단지부를 중심으로 성금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재일한인민단 본국사무소는 새마을 성금과는 별도로 1981년까지 133,650천 원을 전달하였고, 1970년 농약살포용 헬리콥터를 구입(48,500천 엔)하여 기증하였다. 이 밖에도 수많은 재일한인들은 고향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업과 양잠(養蠶)업 장려, 농지정리, 도로 및 가교건설, 주택개량, 4H운동, 새마을 회관 및 공장건립 성금 등을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표 8> 제주도 새마을 자매결연 및 성금전달 현황

(단위 : 천원)

지역별	민단지부	성금지원액	년도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靜岡本部	312	1973
북제주군 한림면 금릉리	宮城本部	418	1973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東京荒川	314	1973
남제주군 대정면 일과리	秋田本部	299	1973
남제주군 성산면 신양리	福島本部	202	1973
북제주군 조천면 신흥리	岩手本部	194	1973
남제주군 서귀면 서흥리	山形本部	224	1973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	東京本部	250	1975
북제주군 애월면 용흥리	東京本部	250	1975

자료 :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2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pp.169~171.



## IV.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과 투자활동

### 1.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

제주도 출신들은 오사카를 근거지로 삼아 상공업 진출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소규모 자본을 축적한 이들은 고무, 유리, 유지, 피혁, 섬유, 잡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까지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나갔다. 그 중에서도 고무는 생산설비가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가장 먼저 가내수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일부 재일한인은 이러한 가내수공업을 통해 적지 않은 재력을 모았지만, 1949년 후반부터 일본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대형 제조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고무공장은 점차 소멸되었다. 이후 재일한인들은 음료, 유기업, 대중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그 중에서 파친코 산업은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자금 회전이 빨라 사업기반이 취약한 한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1950년대 중반 일본 정부의 규제에 많은 파친코 사업체가 도산하였으나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민족계(民族系)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일한인들은 그 덕택으로 파친코업계를 점차 장악하면서 견실한 사업기반을 구축해나갔고,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일본에서 건전한 오락문화로 정착시켜 나갔다. 전후 일본에 남아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많은 한인들이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한편 재일제주인 중에는 일본사회에서 온갖 차별 속에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동향 출신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에 건너가 어려운 속에서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세계굴지의 기업을 창업시킨 기업가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이 주 초기 양곡판매점, 잡화상, 공장노동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고무, 유리 관련 가내수공업, 신발공장, 봉제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힘들게 자본을 형성해 왔다. 1970년대에 이르면서 1세 기업가들은 2선으로 물러나고 지금은 2-3세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자기분야에서 독특하게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설비, 조선업, 관광업 등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표 9>에서 보면 당시(1991년 기준) 일본에서 고액 납세자는 동경 4명(4,981백만 엔), 고베 2명(1,348백만 엔), 오사카 25명(6,305백만 엔) 등 총 31명으로 대부분 회사들이 오사카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 납세금액을 보면 전체 12,634백만 엔 중에서 제주시

6,456백만 엔(9명), 한림읍 2,031백만 엔(5명), 남원읍 454백만 엔(4명), 표선면 1,689백만 엔(3명), 대정읍 1,201백만 엔(3명), 조천읍 172백만 엔(2명), 나머지(애월읍 390백만 엔, 한경면 102백만 엔, 서귀포 49백만 엔, 구좌읍 49백만 엔, 성산면 41백만 엔) 등은 각각 1명으로 제주 시 출신이 50% 이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신고금액은 1990년과 1991년 기준으로 김봉근이 경영하는 천마(天馬)가 가장 많이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일본 내 전체 신고액 12,634백만 엔 중에서 4,462백만 엔을 신고함으로써 개별 기업가로는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1990년과 1991년도 신고금액으로 보더라도 재일제주인은 한인경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며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재일제주인 소득신고 순위(1990년과 1991년 기준)

(단위 : 백만 엔)

順位	會社名(所在地)	代表者(出身地)	1990년 신고금액	1991년 신고금액	일본 내 순위
1	天馬(東京)	金鳳根(濟州市)	4,228	4,462	1,121
2	富士電線(大阪)	康忠男(表善面)	866	875	5,562
3	平和産業(神戸)	姜順贊(翰林邑)	412	755	6,451
4	大邦興業(大阪)	李鼎根(大靜邑)	676	719	6,758
5	星田골프(大阪)	金致富(濟州市)	3,836	710	6,854
6	富士電販(大阪)	康忠男(表善面)	614	666	7,302
7	平和고무(神戸)	姜順贊(翰林邑)	412	593	8,271
8	盛宏(大阪)	安仁淳(濟州市)	523	461	10,717
9	光住建(大阪)	姜哲熙(涯月邑)	122	390	12,795
10	共榮産業(大阪)	李純宏(大靜邑)	244	369	13,603
11	金海商事(東京)	金坪珍(濟州市)	171	361	13,842
12	南海會館(大阪)	金昌仁(翰林邑)	132	340	14,667
13	朝日사이렌(大阪)	康贊旭(翰林邑)	412	282	17,691
14	藤田土地(大阪)	金良雄(濟州市)	59	233	21,381
15	日本有機(大阪)	安在祐(表善面)	142	148	33,461
16	ABC觀光(大阪)	梁熙晋(南元邑)	127	141	34,986
17	近畿自動車教(大阪)	金奉逸(朝天邑)	117	114	43,129
18	大德企業(大阪)	李林根(大靜邑)	99	113	43,470

19	그랜드觀光(大阪)	梁熙晋(南元邑)	78	112	43,486
20	共和紙料(大阪)	金永孝(南元邑)	109	107	45,471
21	松岡단추(大阪)	李寬珩(翰京面)	53	102	47,835
22	第一觀光(東京)	梁熙晋(南元邑)	78	94	51,906
23	愛三産業(東京)	白昌鎬(濟州市)	94	64	74,089
24	眞田化工(大阪)	愼在孝(濟州市)	60	62	76,087
25	丸和(大阪)	吳文弼(翰林邑)	-	61	78,105
26	大信(大阪)	韓長淑(朝天邑)	41	58	81,535
27	新井고무(大阪)	朴達炯(濟州市)	56	55	84,416
28	東洋産業(大阪)	朴東烈(西歸浦)	-	49	93,708
29	昌慶苑(大阪)	金其彦(旧左邑)	-	49	95,145
30	第一化成(大阪)	金富雄(濟州市)	-	48	96,755
31	東京運輸(大阪)	金達孝(城山邑)	43	41	111,185

자료 :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 濟州魂 :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나라출판.

## 2. 재일제주인의 투자활동

### 1) 재일제주인의 한국에의 투자사업

재일한인 기업가들은 1965년 한일협정(韓日協定) 이후부터 일본의 앞선 기술을 본국에 이전함으로써 한국이 선진공업화를 이룩하는데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64년까지의 공식통계에 따른 재산반입 명목의 재일한인 자금만 해도 2,569만 달러(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2,000달러)였다. 특히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재일한인이 본국에 투자한 금액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액 9억 달러를 상회했다.<sup>26)</sup> 이처럼 재일한인 기업가들의 국내진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본의 선진기술 도입, 공장설비 구축 등으로 인해 산업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재일한인 1세대의 애국심에서 발로한 투자란 측면도 있었지만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 한국 시장의 매력도 컸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26) 재일한인의 전체 투자 액수는 정확한 수치로 산출하기 어렵다. 다만 在日本大韓國民團(이하 민단)을 통한 투자 액수만 해도 대략 3조 2,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1965년부터 시작된 40년 동안의 재일한인의 본국 투자 형태는 친척방문 투자(65~80년), 제조업 투자(65~88년), 서비스업 투자(88~88년), 첨단 산업 투자(2000년 이후)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본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표 10>에서 보면 본국에 진출한 제일한인 기업가들은 섬유, 기계, 전기·전자, 금속 등의 제조업 분야를 비롯해 금융, 관광·레저 등과 같은 서비스업 부문까지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수출 촉진 등 모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본국의 전기·전자산업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韓國마벨(金容太), 싸니電氣(郭泰石), YC안테나(許弼奭) 등을 비롯해 롯데제과(辛格浩), 邦林紡績(徐甲虎)<sup>27)</sup>, 三和製罐(姜炳浚), 大韓合成化學工業(安在祐), 新韓銀行(李熙健)<sup>28)</sup> 등과 같은 많은 기업가들의 본국 투자활동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왔다.

제주도 출신으로 제조업에 투자한 대표적인 기업가로 안재호(安在祐)는 일본에서 유기 화학공업 등 5개 기업을 운영하면서 1967년 대한합성화학공업을 설립하여 한국 화학공업의 기초를 다진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 화학회사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마케팅, 기술, 일본인 직원을 데리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종업원들을 일본에 파견해 기술 연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고운중(高雲鍾)은 (주)旭비니루(電線製造業)를 경영하면서 1979년 본국 산업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경기도에 한일합작으로 중장비용 유압 컨트롤 밸브전문 업체 (주)한일유압을 설립하기도 했다. (주)한일유압이 생산한 건설 중장비 및 산업용 기계의 모든 제어의 중심에서 이를 컨트롤하는 핵심기기 메인 컨트롤밸브는 2004년 옛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면서도 ‘ISO9001’과 R마크를 획득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부유하고 있으며, 연 매출의 10%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공격적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인건비가 급등하고 기술발전이 진척되면서 제일한인들의 본국 투자도 제조업에서 탈피해 호텔, 골프장, 빌딩 임대 등 서비스업으로 업종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에서 IT<sup>29)</sup>업종의 한국진출이 시작되며, 전기에서 전자로의 업종변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제주도 출신 가네다 세이힝(金田 聖彬, 아인소프트)은 2009년 광주지역 온라인게임 개발과 유통사업 전문회사에 향후 7년간에 걸쳐 총 1억 달러(1,200억 원 상당)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27) 서갑호(徐甲虎)는 일본에서 사카모토팡직(坂本紡績)을 운영하면서 1963년 100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 방림팡직(邦林紡績)을 창립하고 구미공업 단지에 대규모 방직공장을 세웠다.

28) 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이희건(李熙健)은 1977년 납입자본금 30억 원(설립 당시 납입자본금 5억 원)으로 第一綜合金融을 설립하였다. 이어 1982년에 설립된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제일한인들의 순수한 민간자본(납입자본금 25억 원)으로 탄생되어 일본에서 축적한 경영노하우를 도입하여 한국의 금융계에 신바람을 불게 하였다.

29) 손정의(孫正義, 소프트뱅크) 회장은 소프트뱅크 코리아를 설립하여 IT 관련 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표 10> 재일한인의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사)

업종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기전자	30	30	28	28	28	30	28	22	22	22	
금속	12	13	13	13	13	13	13	4	4	4	
화학	16	20	20	20	20	20	20	10	10	10	
기계	10	12	10	10	10	10	10	11	11	7	
식품	13	13	13	14	14	14	14	4	4	4	
섬유의복	4	5	4	4	4	4	4	2	2	2	
기타 제조	12	6	5	5	5	5	5				
무역	6	12	13	13	13	13	13	10	10	10	
숙박	25	27	28	28	28	28	28	15	13	13	
금융	10	12	9	9	9	9	9	11	11	12	
건설	7	7	7	8	8	8	8	4	4	3	
골프	14	13	13	13	13	13	13	11	11	10	
운수	4	4	4	4	4	4	4	2	2	2	
건물임대관리	9	13	13	13	13	13	13	9	9	9	
기타 서비스	29	21	21	21	55	22	22	16	15	13	
합계	201	208	201	203	204	204	204	131	128	120	

자료 :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표 11>에서 보면 재일한인의 모국투자는 1977년 74사가 본국에 진출하여 그 동안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1995년 201사까지 늘어났으며 투자액이 약 3,260억 엔에 달했다. 1997년 본국의 IMF 구제금융(救濟金融)을 계기로 2004년 120사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현재 90사가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지역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에의 투자에 대한 감소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 거품경제의 붕괴와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며, 또한 재일민단도 규약에서 ‘거류(居留)’를 삭제하고 일본 ‘정주(定住)’를 지향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들은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로 출발한 1960년대 초 힘이 없는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해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재일한인의 본국 경제발전에 대

한 공헌은 재화만이 아니라 정신적 지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재일한인 사회에 대해 취직차별 철폐가 진행되는 한편 재일한인 사회의 우수한 인재가 일본 기업에 흡수되면서 재일한인 기업가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본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애항심이 아닌 재산성을 증시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1> 재일한인의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 사)

지역 \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서울	119	121	124	120	121	122	122	73	63	56
부산	12	12	14	14	14	14	14	8	8	8
대구	5	4	5	5	5	5	5	1	1	1
인천	6	6						2	2	2
경기	26	16	19	19	20	20	20	20	20	20
경남	16	16	17	16	16	16	16	15	15	14
경북	12	12	12	10	10	10	10	11	11	11
충남	3	3	4	4	4	4	4	3	3	3
충북		3	4	4	4	4	4	2	2	2
전남	1	1								
광주	1	1								
제주	8	8	6	6	6	6	6	1	1	1
기타			3	3	3	3	3	2	2	2
합계	201	203	208	201	203	204	204	138	128	120

자료 :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 2)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의 투자사업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의 투자는 앞에서 기술한 기증과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유산 등과 같은 고향 제주도에 자산을 위탁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인척들과의 사적 거래에 있어서 갈등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며 대규모 공식적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1965년에는 제주도 개발을 위한 해외동포 재산반입 허가에 관한 처리지침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일제주인의 향토개발을 위한 투자의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공식·비공식 자료를 통해 파악된 재일제주인의 투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평진(金坪珍, 金海蔘社)은 1963년 외국인이 투숙할 만한 호텔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약 3천만 원으로 제주도에 현대식 시설(건평 2,890㎡)을 갖춘 제주관광호텔(현 하니크라운관광호텔)을 지었다.<sup>30)</sup> 이후 그는 1964년에 서귀포에 허니문하우스(현 파라다이스호텔)와 서귀포관광호텔을 연이어 건립해 제주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투지는 재일교포 재산반입의 동기가 되고 제주출신 한인들에게 애항심 발로의 가교역할을 했다. 게다가 그는 1966년 운영난에 허덕이는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하여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갔고, 이후 1977년 제주신문에 투자하여 언론의 지역발전과 문화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김봉학(金鳳鶴, 天馬合成樹脂)은 1969년 제주은행을 창립하고 이후 1974년 제은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등 재일제주인 자본에 의한 제주지역 시민금융기관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후 천마물산, 천마목장, 천마학원, 퍼시픽랜드 등 제주경제와 교육발전,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 뒤를 이어 이왈옥(李曰玉, 東京協和 고무工場·東京山新興業)은 1979년 10월에 고향으로 돌아와 제주팔레스개발(주)을 설립해, 1988년 관광1급 호텔인 제주팔레스관광호텔을 건립했다. 이어 1999년에는 제주하와이관광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백창호(白昌鎬, 愛三産業·白河産業)는 1986년 제주컨트리클럽을 설립하여 고향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1994년 기독교법인단체인 운산장학회를 창립하여 도내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왔다. 김홍주(金弘周, 本家かまどや)는 1999년 고향 제주에 자본을 투입해 안덕면 상천리에 29홀 규모의 핀크스 CC(골프클럽)을 개장하여 세계 100대 골프코스에 진입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러한 투자의 성공은 지금까지 고향 제주에 투자한 재일제주인 기업가가 상당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 재일한인 사회가 고향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개발의 자본조성을 위해 자치단체장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제주인의 자본유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1997년 8월 1,600억을 투자하여 제주컨벤션센터(ICC Jeju)를 건립하였다. 총 출자액(1,600억 원)에 주주가 4,129명인 ICC 주식분포는 제주특별자치도 57.02%, 한국관광공사 17.42%, 그리고 도민과 기업체 등 민간주주가 25.56%를 갖고 있다. 이 중 재일제주인의 자본은 주주 55명이 77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컨벤션센터 설립에 기여하는 등 제주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제주컨벤션센터는 2004년 결산결과에서 71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매출액도 당초 목표액인 54% 수준인 9억 7,300여만 원에 머물면서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제주도가 재일제주인의 동정심과 애항심

30) 《제주신문》 1963년 10월 15일자.

에만 의존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투자전략 수립이 부재했음을 드러내고 있고, 관리상의 허점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의 투자는 서비스업, 금융업 등에 소규모이거나 가족단위 혹은 지역의 기증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제주도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재일제주인의 고향에 투자할 때마다 좋은 성과가 없어서 2세들이 새로운 투자에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 V. 맺음말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투자활동을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재일제주인 연구 분야에서 연구주제를 확장하고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 노동자의 송금은 제주도내에 그대로 유입되면서 농촌의 현금보유를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으며, 제주도 경제발전에 큰 활력을 가져다주었다.

둘째, 출가해녀의 송금은 제주도 농촌의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나아가 제주도 경제가 윤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기증 초기의 생활시설 사업과 생활향상 수준에서 벗어나 교육 분야와 같은 미래지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기증 동기도 초기의 동정적 애향심·경제적 우월성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취에 대한 과시와 사회적 명예, 그리고 체면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

넷째, 재일제주인의 지역사회공헌은 수혜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면 제주도의 지역개발,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재일제주인의 감귤묘목 기증은 단순히 묘목의 수요와 공급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제주도의 경제발전 방향과 재일제주인과의 관계정립의 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여섯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은 한인경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진출하여 많은 자본을 힘들게 형성해 왔다.

일곱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1960년대 초 힘이 없는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해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재일제주인의 본국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은 재화만이 아니라 정신적 지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여덟째, 재일제주인의 투자는 기증과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제주도에의 자산을 위탁하는 형태가 많았다. 특히 해방 이후 1990년대까지 재일제주인의 투자활동은 소규모이거나 가족 단위 혹은 제주도에의 기증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투자활동은 제주지역의 눈부실만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공헌하였으며, 더 나아가 재일제주인의 애향심과 제주사회의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재일한상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한인사회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투자활동을 통해 재일제주인의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즉 제주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며, 나아가 재일제주인과 제주사회와의 건전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제주도민들은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활동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삶이 지니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투자활동을 통해 재일제주인의 자본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재일제주인 자본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투자유치 정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모국 및 제주도에의 투자와 관련된 정부 기록과 민간의 연구물, 매스컴들의 보도기록들이 극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공식과 비공식 자료를 통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재일한인 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社會科學研究』 제14(1)집, 西江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pp.148~181.

고광명(2008),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學研究』 第22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187~210.

김 게르만(2005),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김희철·진관훈(2007), “재일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 기증에 관한 연구”, 『法과 政策』 제13집, 濟

州大學校 法과 政策研究所, pp.101~124.

신행철(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道研究』 제14집, 濟州學會, p.70.

尹健次(2002), “21세기를 향한 제일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와 제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경원·진관훈(2006), “제주도 지방정부의 제일제주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韓國比較政府學報』 第9卷 第3號, 韓國比較政府學會, pp.171~188.

제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 濟州魂 :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나라출판.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濟州島廳(1937), 『濟州道勢要覽』.

濟州島廳(1939), 『濟州道勢要覽』.

제주발전연구원(2000), 『100만 제주인의 사회적 통합증진과 역량 극대화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2007),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제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鄉의 보람』.

진관훈(2004), “일제하 濟州島 경제와 海女勞動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p.149-178.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각.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 關東地方を中心に』, 新幹社.

高鮮徽(1998), 『20世紀の滯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榊田一二(1976), 『榊田一二地理學論文集』, 弘詢社.

河明生(2003), 『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精神 : 在日韓人事例研究』, ITA.

長嶋俊介(2008), 「世界遺産登録に向けての文化の掘り起こしと交流」, 『제주해녀와 일본아마(海女)의 무형유산』, 제3회 한·일 해녀(海女) 국제학술심포지엄, pp.53~54.

入管協會(2007), 『在留外國人統計』.

小川伸彦·寺岡伸悟(1995), 「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寄贈-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地縁結合」, 『社会学論集』 第2号, 奈良女子大学, pp.77~97.

李仁子(2004), 「移住者の故郷への寄付と故郷づきあいの変遷」, 『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 文部省科学研究費 國際學術研究報告書, pp.7~17.

梁京姬(2009), 「在日韓國人企業家が韓國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國朝鮮研究』 第9号, 現代韓國朝鮮學會, pp.16~30.

《每日申報》1927년 1월 18일

《東亞日報》1927년 1월 19일

《제주신문》1963년 10월 15일

<필자인적사항>

고광명

근무처: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직위: 특별연구원

주소: <690-7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사석로 5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전화번호: 064-754-4788

핸드폰: 010-9838-0512

논문투고일 : 2009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09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0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0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0년 01월 23일